

# 곡성여행, 미술여행



곡성천 뚝방길 '견생조각전'에서 만나는 김숙빈 작가의 '등산화'

'곡성으로 떠나는 즐거운 미술여행.'

기차마을 등으로 유명한 곡성으로 예술나들이를 떠나보자. 곡성천변에서는 유쾌한 조각작품 전시와 더위를 날려버릴 얼음 조각 시연회가 열린다. 아산조방원미술관에서는 엄마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갤러리 107에서는 곡성의 명소를 만날 수 있는 정명돈 작가 초대전이 기다리고 있다.

김기현 작 '엄마, 아들'



곡성뚝방길 '견생조각전' 30일까지 조각가 25명 참여... 얼음조각시연도 조방원미술관 '엄마, 엄마의 꽃밭' 전 김기현·김효삼·소빈·최희영 참여 갤러리 107선 정명돈 작가 '풍광' 전

을 담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낮은 출산율, 인구의 고령화, 노인인구의 빈곤 등으로 부모 뿐 아니라 주변에 대한 마음 씀씀이와 소통이 더 중요해진 요즘에 한 번쯤 찾아볼만한 의미있는 전시다.

아산조방원미술관에서는 8월15일까지 특별 전시 '엄마, 엄마의 꽃밭' 전을 열린다. 전시에는 김기현·김효삼·소빈·최희영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해 입체, 회화,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58점을 전시하고 있다.

김기현 작가는 소쿠리, 주걱, 도마 등 엄마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한지 공예 작업을 하는 소빈 작가는 자식의 무사안락을 기원하는 어머니의 모습 등을 통해 끝없는 모정을 보여준다. 또 김효삼 작가는 은은한 수채화 작업을, 최희영 작가는 '엄마꽃' 등 천연염색 작품을 선보인다.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 휴관.

◇갤러리 107 '정명돈' 전

운무에 싸인 동약산의 여름, 눈 내리는 함허정, 물안개 피어오른 섬진강...

곡성을 오래된 상가를 개조해 문을 연 '갤러리 107'에서는 '곡성 풍광전-雲 흐름 속으로' 전(7월14일까지)이 열리고 있다. 한 국화가 동와 정명돈 작가를 초대한 전시로 곡성의 아름다운 사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획이다.

정 작가는 1년 동안 곡성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시사철 다양한 풍광을 화폭에 담았다. 무엇보다 '우후(雨後)' 시리즈가 눈길을 끈다. 섬진강과 동약산, 함허정 등 곡성 명소들의 비온 뒤 풍경은 신비롭고 아련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정 작가는 지금까지 18회 개인전, 500회가 넘는 국내외 초대전과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한국화 구상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설총식 작 '탐험-휴식하는 이'



지난해 열린 '찾아가는 눈조각전'



'남사당 THE 끌림'

## 남사당 THE 끌림 '가면무극'

19일 전통문화관 토요일공연

연희 전문예술단체 '남사당 THE 끌림'이 전통문화관 토요일 상설공연 무대에 오른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에서 '남사당 THE 끌림'을 초대해 '남사당 뒤틀리기-가면무극' 공연을 펼친다.

'남사당땀'은 조선 후기부터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노래·춤·풍물연주 등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무리를 뜻하며 '남사당 THE 끌림'은 이날 남사당땀가 탈을 쓰고 하는 탈춤연희를 선보인다.

공연은 제1과장 '마당씻이'와 '고사소리'로 시작한다. 남사당패들이 만나 탈을 쓰고 삼도놀이와 풍물굿을 연주하며, 관람객·출연진 모두의 안녕과 무사히 놀이판의 끝나기를 기원하는 고사 소리가 이어진다. 다음으로 제3과장 '샌님잡이'는 샌님·노친네·말뚝이가 등장해 양반의 허세를 비판하는 천민들의 내용을 다룬다. 제4과장 '먹중잡이'는 쇠먹중·취발이·상중·피조리가 등장해 문란한 성도덕을 풍자하며 신명과 흥취를 돋운다.

'남사당 THE 끌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보존회 이·전수자 및 사법법인 남사당놀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희 전문예술단체이다. 공연에는 예술감독 한유진, 총연출 문진수, 음악감독 한창희 등을 비롯해 허정현·이지원·박찬중·서희연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670-8506. /박성천 기자 skypark@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7월 9일까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지원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에 시민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7월 9일까지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좋은 안은 계획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시민들이 느낀 점, 전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방법은 지원포럼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표 문화조성사업, 아시아문화전당 발전, 광주시 문화정책과 관련 아이디어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면 된다. 최우수상 50만원(1명), 우수상 30만원(2명), 장려상 20만원씩(5명)의 상금이 수여되며, 결과는 7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현충합계회상)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 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등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의 062-611-204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